

---

# 2024년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한 무역보험 지원 확대 방안

---

2024. 3. 25.



관계부처 합동

# 목 차

I . 추진배경 .....	1
II . 무역보험 공급 현황 .....	2
III . 2024년 무역보험 공급 기본원칙 .....	3
IV . 2024년 추진방향 .....	4
V . 2024년 주요 추진계획 .....	5
1. 업종별 수요 맞춤형 무역보험 지원 .....	5
2.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경쟁력 강화 지원 .....	7
3. 중소 · 중견기업 지원 확대 .....	8
4.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 리스크 경감 .....	10

## I. 추진배경

### □ 무역보험은 우리 수출기업의 든든한 지원군

- 무역보험은 “수출계약·수주 - 제작 - 선적 - 결제” 수출全过程에 걸쳐 수출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와 대금회수 리스크 헷지 등을 지원

계약·수주	물품 제작	물품 선적	대금 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수입자 신용조사</li> <li>▶ 프로젝트 발주처 구매금융</li> <li>▶ 원부자재 수입자금 대출 보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작자금 대출 보증</li> <li>▶ 선수금 보증 (조선·방산·원전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li> <li>* 은행이 수출채권 매입시 무보의 보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 수출보험</li> <li>▶ 환변동보험</li> </ul>

- 수출액 대비 무역보험 공급 비중은 '17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며 '23년 비중은 약 30%로 우리기업의 도전적인 수출활동을 지원중

\* 무역보험 비중(=무역보험/수출액, %) : <sup>(17)</sup> 22.3 → <sup>(19)</sup> 24.7 → <sup>(21)</sup> 26.6 → <sup>(22)</sup> 27.0 → <sup>(23)</sup> 29.7

### □ 글로벌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수출 중소·중견기업 자금사정 악화

-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기초체력 상당히 약화
  - \* 무역협회에서 실시한 수출기업 설문조사('23.6월) 결과,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 우선과제에 대해 ①금융, ②기술, ③인력, ④마케팅, ⑤인증 順으로 응답
- 기술력이 있음에도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충분한 유동성 공급을 통해 수출상승 모멘텀을 확고히 할 필요

### □ 수출기업 현장에서도 무역보험에 대한 수요 급증

- 반도체·조선·기계 등 업황 본격 회복에 따라 무역보험 수요 급증
- 최근 방산·플랜트·원전 등 분야가 新수출 산업으로 대두\*되면서 해외 프로젝트 수주금융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도 증가
  - \* 수주 : △방산 '22 124억불, △플랜트 '23 302억불(전년비 +25%), △원전(체코·루마니아 추진중)
-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전기차·배터리·가전 등 해외 진출한 현지법인\*과 대기업 협력사 등의 새로운 무역보험 수요도 대두
  - \* 최근 3년간 해외법인 신설(개사) : ('20) 2,326 → ('21) 2,246 → ('22) 2,4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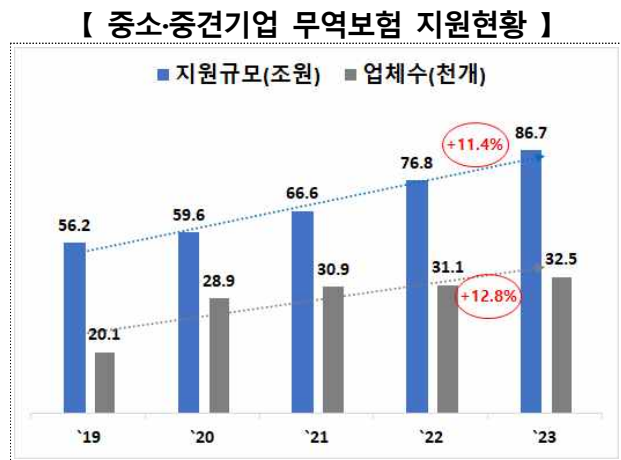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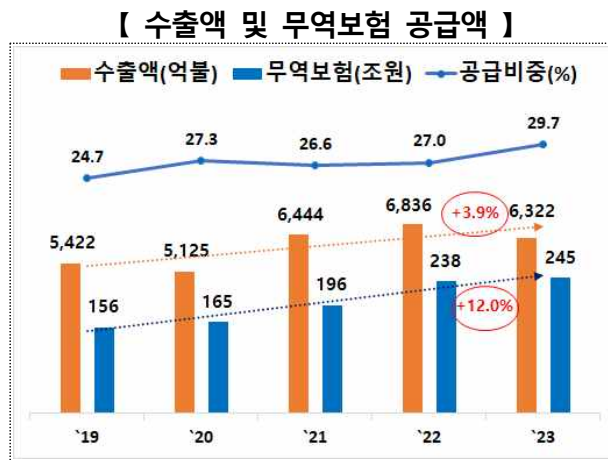
◆ '24년 역대 최대 수출목표 7천억불 달성을 위해 산업별 금융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무역보험 지원 확대 방안」 마련

-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무역금융 부담 완화와 무역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무역보험 수요를 적극 지원 필요

## Ⅱ. 무역보험 공급 현황

### □ 최근 무역보험 공급 규모 대폭 확대 ('19년 156조 → '23년 245조)

- 최근 5년간 무역보험 공급 증가율(年 12%)은 수출 증가율(年 3.9%)을 대폭 상회, 기업들의 무역보험 활용 증가 추세('23년 29.7%)
-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공급액과 지원 기업수도 年 10%대 수준 증가 ('23년 중소·중견기업 지원액 비중은 35.4%)



### □ 특히, 최근 해외 프로젝트 수주 금융 대폭 확대

- 전체 공급액 중 단기 수출보험이 85% 차지, 최근 3년간 플랜트·방산 등 해외 프로젝트 수주 금융 급증 ('21년 8.4 → '23년 29.4조원)

【 최근 5년간 사업별 무역보험 지원실적 】

(단위 : 조원)

구 분	'19	'20	'21	'22	'23
단기수출보험 (제품수출 대금)	139.7	149.8	181.2	216.9	208.1
중장기성보험 (해외 프로젝트 수주금융)	11.2	9.8	8.4	13.0	29.4
수출신용보증 (중소·중견 대출 보증)	2.9	3.4	4.0	4.5	4.4
환변동보험	0.9	1.0	0.8	1.3	1.3
수입보험	1.1	1.2	1.4	2.7	1.6
합 계	155.8	165.1	195.9	238.4	244.8

### Ⅲ. '24년도 무역보험 공급 기본원칙

#### □ 역대 최대 규모인 255조원 이상 공급 추진

- '24년 무역보험 계약 체결한도\* 270조원 설정 (본한도 250 + 예비한도 20)  
\* 국무회의→국회 의결을 거쳐 전년도에 확정 ('23년 260조원에서 10조원 증액)
- '24년 무역보험 공급 목표는 역대 최대인 255조원으로 설정  
\* ①단기수출보험 213조원, ②중장기수출보험 35조원, ③수출신용보증 5조원 등
- 중소·중견기업 대상 무역보험 공급액도 역대 최대 90조원 목표

#### □ 기업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지원 프로그램 신설 또는 확대

##### ① 업종별 수요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무역금융 지원

▶ (반도체 A社) 최근 국내 투자 확대와 연계하여 첨단장비구매를 위한 중장기 자금 수요 증가 → 향후 수출 확대기반 마련을 위한 자금대출 보증지원 확대 필요

##### ② 수출 파급력이 큰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수주 적극 지원

▶ (방산 B·C社) 폴란드 2차 방산 수출 계약을 포함하여 향후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 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의 정책금융 지원이 필수적  
→ 수은 자본확충과 함께 무역보험기금도 병행 확대될 필요

##### ③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

▶ (年수출액 200만불인 중소기업 D社) 보험료와 서류작업 부담 등으로 무역보험 없이 수출중 →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낮고 절차가 간소한 단체보험 확대 요청  
▶ (수출 대기업에 납품중인 E社) 직접수출 실적이 없어 무역보험 활용 애로

##### ④ 수출기업들의 미개척 신흥시장 진출 리스크 경감

▶ (아프리카 국가에 제품을 수출중인 F상사) 신용도가 낮은 아프리카 바이어 대상 무역보험 지원 한도가 낮아 수출 규모 확대에 애로  
▶ (중소기업 G社) 해외 바이어 정보 부족으로 새로운 수출선 발굴에 난항

##### ⑤ 해외현지법인들의 무역보험 활용도 제고

▶ (전력기기 H社)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J국에 해외현지법인을 설립, 해외현지법인 판매 물품 대한 무역보험 이용 시 본사를 통해서만 계약가능  
→ 현지법인 무역보험 이용 절차 간소화 필요

## IV. 2024년 추진방향

비전

무역보험 총력 공급을 통해  
**2024년 수출 7천억불 달성**

목표

◆ '24년 역대 최대 무역보험 255조원 공급  
[중소·중견기업에도 역대 최대인 90조원 공급]

방향

- ◆ 업종별 수요에 맞춰 구체적 공급목표 첫 제시
- ◆ 방산·원전·플랜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밀착 지원
- ◆ 수출 중소기업을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
- ◆ 글로벌 사우스 등 시장개척을 위한 수출보험 특별지원
- ◆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현지법인·협력사 지원 신설

### 업종·프로젝트 밀착 지원

- ① 업종별 맞춤형 공급
  - ▶ 주력산업 136조원
  - ▶ 유망소비재 18조원
  - ▶ K-콘텐츠 2조원
- ②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
  - ▶ 방산 7조원
  - ▶ 플랜트·에너지 15조원
  - ▶ 원전 4조원

### 중소중견 집중 지원

- ①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신설(2.2조원)
- ② 중소·중견 부담 완화
  - ▶ 한도상향, 보험료 할인
  - ▶ 단체보험 활용 지원
- ③ 중소형 조선사 지원
  - ▶ RG 특례보증 규모 확대
  - ▶ RG발급 은행 참여 촉진
- ④ 신산업 지원 강화
  - ▶ 스마트팜 등 우대 지원
  - ▶ 수출테크기업 성장 지원
- ⑤ 협력사 지원
  - ▶ 수출 공급망보증 신설

### 해외진출 리스크 경감

- ① 글로벌 사우스 등 신흥시장 특별지원 (10조원)
  - ▶ 보험한도·부보율 상향
  - ▶ 심사방식 간소화
- ② 해외현지법인 지원 상품 신설
  - ▶ 대금회수 단기보험
  - ▶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 ③ 신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바이어 신용 정보 제공 확대

## V. 2024년도 주요 추진계획

### 1 업종별 수요 맞춤형 무역보험 지원

□ **주력업종별 거래 특성에 따른 적소·적기·적극 지원** ('24년<sup>목표</sup> 136조원)

#### ① [자동차·이차전지] 수출보험 확대와 해외투자 금융 등에 총 33조원

구 분	무역금융 수요	지원 방향
완성차	▶ 현지 판매법인과의 직접거래 → 보험수요 低	▶ 신흥국 부품수입업체들에 대한 보험 한도 상향 등을 통한 충분한 단기 수출 보험 공급
차부품	▶ 중남미·아세안 등으로 수출 시, 중소·중견기업 수출보험 수요 高	
이차 전지	▶ 수출 호조세와 연동하여 수출보험 급증* * ('21) 11.9 → ('22) 18.9 → ('23) 22.2조원 ▶ 해외공장 투자 확대에 따른 자금 대출 보증수요 상당	▶ 글로벌 전기차 제조사 및 소규모 수입자 (ESS, 납축전지 등)에 대한 보험한도 상향 ▶ 국내 원부자재(양극재 등) 수출 확대 효과 등을 고려, 해외사업 금융 우선 지원

#### ② [기계·선박] 고위험국 특별지원과 선주금융 중심으로 총 13조원

구 분	무역금융 수요	지원 방향
일반 기계	▶ 국가 신용도가 낮은 신흥국 시장에 대한 수출보험 확대 필요	▶ 글로벌 사우스(중동·중남미·아프리카) 등 고위험 10개국에 대해 특별 지원
선박	▶ 해외 발주처(해운사)가 우리 선박 구매시 대규모 자금수요 발생 ▶ 발주처 선수금에 대한 중소형 조선사들의 보증수요 高	▶ 해외 해운사 대상 선주금융(대출보증) 지원 확대 ('23년 3.3조원 → '24년 6조원 <sup>목표</sup> ) ▶ 시중은행들의 원활한 RG 발급을 위해 “중소형 조선사 RG 특례보증” 지원 확대

#### ③ [유화·철강] 포괄보험·수입보험, 수출채권 유동화 등에 총 40조원

구 분	무역금융 수요	지원 방향
석유 화학 · 철강	▶ 석화중국·아세안, 철강중남미·아세안 수출시 수출보험 수요 高 ▶ 석화납사 등 원료 수입자금 보증 수요 상당 ▶ 중소 무역업체를 중심으로 수출 채권 조기 현금화 수요 高	▶ 모든 거래선에 대한 수출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상품(포괄보험)을 통한 지원 ▶ 충분한 수입보험 한도 제공 ▶ 중소기업에 대해 시중은행과 협업을 통해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조건 우대 (한도↑ + 보증료↓)

④ **(IT)** 수출기반 금융, 수출보험 우대, 해외구매자 금융 확대 등을 중심으로 총 50조원

구 분	무역금융 수요	'24년 지원방향
반도체	▶ 신용도 높은 고정거래선 계약 → 보험수요 低 ▶ 첨단 고가장비 수입자금 대출 보증	▶ 수출 확대로 이어지는 국내 투자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수출 기반확충 금융지원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 DP패널 수출(중국·대만), 통신부품 수출(중국·베트남) 시 수출보험 ▶ 우리 통신장비·기기를 수입하는 해외통신사들의 구매자금 보증	▶ OLED, 카메라 모듈 등 유망 IT 부품 수출보험 우대 (한도↑+보험료↓) ▶ 통신기기 해외구매자 금융 확대
가전	▶ 국내 프리미엄 가전 수출보험 ▶ 중국·베트남 공장의 현지 매출시, 보험수요 高	▶ 프리미엄 가전 수출보험 한도 상향 ▶ 해외 현지법인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

□ **유망 소비재에 대한 수출보험 우대 지원** ('24년<sup>목표</sup> 18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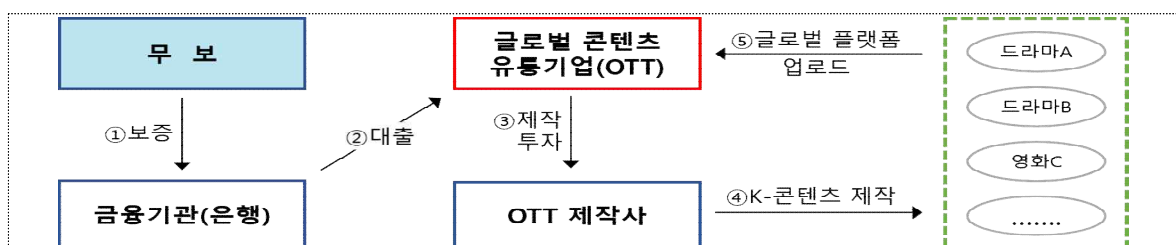
- 5대 유망소비재에 대한 단기 수출보험 우대지원 확대와 신흥 시장 수입업체 정보제공 강화
  - \* 수입업자 보험체결 한도 우대('23년 2배 → '24년 3배), 보험료 추가할인('23년 20% → '24년 30%)
-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유망소비재 수출에 대해 신설되는 “수출 패키지 우대금융”을 통해 적극 지원

【 5대 소비재 무역보험 지원현황 및 목표 (단위:조원) 】

구 분	농수산물	화장품	패션/의류	생활·유아용품	의약품	합 계
'21년	3.5	0.4	2.9	4.4	1.5	12.7
'22년	3.4	0.5	3.1	4.7	1.9	13.6
'23년	3.8	0.8	4.1	4.4	2.1	15.2
'24년	5.0	1.0	4.5	5.0	2.5	18.0

□ **K-콘텐츠 수출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신설** ('24년<sup>목표</sup> 2조원)

- 콘텐츠 수출 확대를 위해 글로벌 OTT 기업의 K-콘텐츠 제작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콘텐츠 수출기반보험” 도입
  - \* 수출기반 보증 : 수출로 이어지는 <sup>(현행)</sup> 설비 도입(반도체 제조장비, 선박 등) → <sup>(신설)</sup> 콘텐츠 제작





## 2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경쟁력 강화 지원

### ☐ 방산 수주 단계별 맞춤형 지원 (‘24년<sup>목표</sup> 7조원)

- (수주) 발주국의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방산금융 지원
- (계약이행) 방산 발주국에서 받은 제작 선수금에 대한 보증 지원
- (중소협력사) 국내 방산 협력사에 대해 “방산수출 파트너보증”을 통해 제작자금 대출지원

\* 방산 협력사는 수출 실적이 없어도 수주기업 구매확인서만으로 제작자금 대출에 대한 무보 보증서 발급가능 (‘23년 시범사업 → ‘24년 방산 3사로 확대)

### ☐ 플랜트·에너지 분야 발주처 금융 확대 (‘24년<sup>목표</sup> 15조원)

- 우리기업 대상 발주를 조건으로 사우디 아람코(30억불) 등 해외 우량 발주처에 대한 선제적 보증제공
- 사우디석유화학, 파푸아뉴기니 LNG 플랜트 등 우리 기업이 수주를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 ☐ 원전 분야 금융패키지 지원 및 특례보증 신설 (‘24년<sup>목표</sup> 4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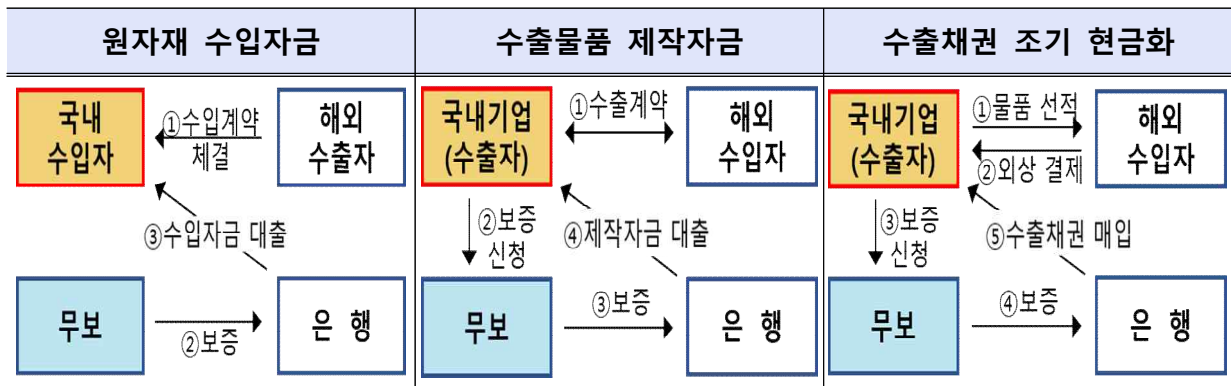
- 해외 원전 프로젝트 수주협상 단계에서 무보·수은 참여를 통해 정책금융 지원 패키지 마련
- 원전 기자재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 선수금 보증을 지원하는 “원전기자재 특례보증” 신설 (‘24년 1,250억원)

### 3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지원 확대

#### □ 은행 - 무보 협력 기반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신설 ('24년<sup>목표</sup> 2.2조원)

- 5대 시중은행 - 무보 간 협력을 통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특화된 은행 금융상품+무보보험·보증 패키지 우대상품 신설('24.3월)  
\* 시중은행은 1,315억원 특별출연, 이를 통해 무보는 2.2조원 규모의 보증·보험 제공
- 은행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이행자금에 대한 저금리 대출(최대 0.7%p), 무보는 보증한도 확대(최대 2배) 및 보험·보증료도 면제

【 수출 패키지 우대금융 지원상품 구성 】



#### □ 중소·중견기업의 무역보험 부담 완화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 신용보증 한도 확대\* 운영('23.2~) 및 단기수출 보험료 할인(50%) 지속  
\* 중소·중견 기업당 최대 보증한도 : 100/200억원 → 200/400억원
- 소규모 수출(年 3천만불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자체·협단체 협업 확대를 통한 단체보험 공급 확대

- ▶ 가입 절차 : 지자체 또는 협회가 무보와 일괄 보험을 체결, 소속 중소기업은 별도 서류제출 없이 수출보험 자동가입
- ▶ 지원내용 : 기업 당 최대 年 5만불 손실 보상
- ▶ 지원 실적·목표 : <sup>(23)</sup> 66개기관 / 2.8만개사 → <sup>(24)</sup> 75개기관 / 3.5만개사

## □ 중소형 조선사 RG 발급 특례보증 지원 확대 ('24년<sup>목표</sup> 4천억원)

- '24년 추가 정부출연(400억원)을 통해 중소형 조선사에 대한 RG 특례보증\* 지원규모를 2천억원 → 4천억원으로 확대

\* 중소형 조선사가 발주처로부터 받는 선수금(통상 40%)에 대한 은행의 RG(Refund Guarantee) 발급에 대해 무보가 보증분담 (現 부보율 85%)

- 금융권의 중소형 조선사에 대한 RG 발급 참여 확대를 위해 무보의 RG 부보율 상향조정(現 85% → 90% 이상) 추진

## □ 수출 유망분야 지원 확대 및 중소 테크기업 발굴·지원

- 유망 신산업 10개 분야\*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단기수출보험 우대 지원 (보험료 20% 추가할인, 보험한도 1.5배 상향 등)

\* △(기존, 8개분야) 전기(자율)차,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우주, 에너지신산업, 첨단 신소재, OLED, 시스템 반도체 + △(추가, 2개분야) 스마트팜, 농기계

- 국내 스타트업이 수출 테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코트라-무보 협업을 통해 1:1 수출 마케팅 및 무역보험 서비스 지원

\* KOTRA와 무보간 협업을 통해 '24년 상반기 중 최대 100개 기업 발굴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 스타트업(공급)과 글로벌 기업(수요) 연결 하여 투자유치 등 후속 지원	▶ 수출 실적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도 특별 신용보증을 통해 운전자금 지원
▶ 해외무역관 창업공간 제공 및 파트너 발굴	▶ 수출시 보험료 최대 90% 할인 우대
▶ 스타트업 전문전시회 참여지원	▶ 우수 수입업체 정보 제공 등 컨설팅 제공

## □ 수출 대기업 협력사 대상 수출 공급망보증 신설 ('24년<sup>목표</sup> 2천억원)

- 수출 대기업 납품 협력사를 대상으로 제작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수출 공급망보증” 신설 ('24.7월)

\* 협력사 수출 실적이 없더라도, 수출 대기업의 납품액을 토대로 수출 기여액 산정

- 자동차 업종 대상으로 대기업과 협업을 통해 '24년 시범운영 → '25년 전업종으로 확대

## 4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 리스크 경감

### □ 글로벌 사우스 등 국가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 확대 ('24년<sup>목표</sup> 10조원)

- 낮은 국가 신용도(OECD 기준 5~7등급)로 인해 수출보험이 제한적으로 지원되는 국가(39개국) 중 10개국에 대해 수출보험 특별지원
  - \* 중동(튀르키예, 이라크), 남유럽(조지아, 사이프러스), CIS(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공화국), 중남미(에콰도르, 푸에르토리코), 아프리카(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
- △수입업자 한도 상향(5배), △무보율 상향(70% → 90%), △심사방식 간소화 (건별심사 → 연간 한도부여) 등을 통해 보험공급 확대

### □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 확대 ('24년<sup>목표</sup> 1조원)

- 신시장 개척,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등을 위해 수출 유발효과가 큰 현지에 진출한 우리 해외법인 대상 보험·보증 프로그램 신설
  - ① (보험) 기존의 국내본사를 통한 간접 보험이 아닌 현지법인이 제3국 수출시 직접 이용가능한 보험상품 도입
  - ② (보증) 현지은행이 현지법인 매출채권 매입시 무보 보증을 통해 현지법인의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지원
- ⇒ 현지법인 수출 유발효과 지속을 위해 ①우리기업 지분 50% 이상 및 ②한국산 원부자재 조달비중\* 40% 이상으로 지원대상 한정
- \* 현지법인 원부자재 조달방식(22) : 한국산수입 43.4%, 현지매입 38.1%, 제3국수입 18.5%

【 해외현지법인 지원상품 구조 】



### □ 수출기업들에 대한 해외 바이어 정보 공개 범위 확대

- 중소·중견 기업들이 신용도를 갖춘 해외 바이어를 스스로 손쉽게 발굴할 수 있도록 무보가 보유한 정보공개 범위 확대
    - \* (기존) 사업장 기본정보, 무역보험정보(이용여부 및 신용불량 여부) → (확대) 신용등급 (무보 자체평가), 무역보험 거래실적
- ⇒ 무보 홈페이지, 협단체를 통해 해외바이어 정보 제공